

박준훈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의소개-1

- ▶ 키워드 ; 비판적 사고, 페미니즘, 리터러시
- ▶ 강사 소개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박사과정, 젠더·어펙트 연구소 연구 보조원 / 20대, 남성, 비장애인, 이성애자
- ▶ 반차별 읽기를 위한 대안으로서 페미니즘 리터러시 연구 :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 ▶ 주요 연구 주제 ; 페미니즘, 정동(affect)에 기반한 연구, 체현된 경험의 글쓰기로서 소설 연구 → 대안적 리터러시

강의소개-2

강의 목차

- ▶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 ▶ 페미니즘과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
- ▶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 ▶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 미디어와 페미니즘 리터러시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The JoongAng 사회

로그인 | 회원가입



괴물 태풍 힌남노 상륙

성인 남성이 쓰러져 뒹굴었다…'힌남노' 덮친
日 충격 장면

중앙일보 | 입력 2022.09.04 09:15 업데이트 2022.09.04 12:02

장구슬 기자

구독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북상 중인 지난 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화포구 인근 해상에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 남성'이
라는 기준

건장한 체격,
강한 힘, 체력,
비교적 강한
재난 대응 능
력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단순히 '노인에게, 아이에게, 여성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인 줄은 압니다. 다만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디폴트 값이, 너무 많은 경우에 성인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인 남성에는 비장애인, 이성애자라는 또 다른 전제가 깔려 있기도 합니다.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디폴트 값’으로서 성인 남성

“이 세상이 재현되는 방식은, 세상 자체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의 작품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묘사해놓고 그것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착각한다.”(시몬 드 보부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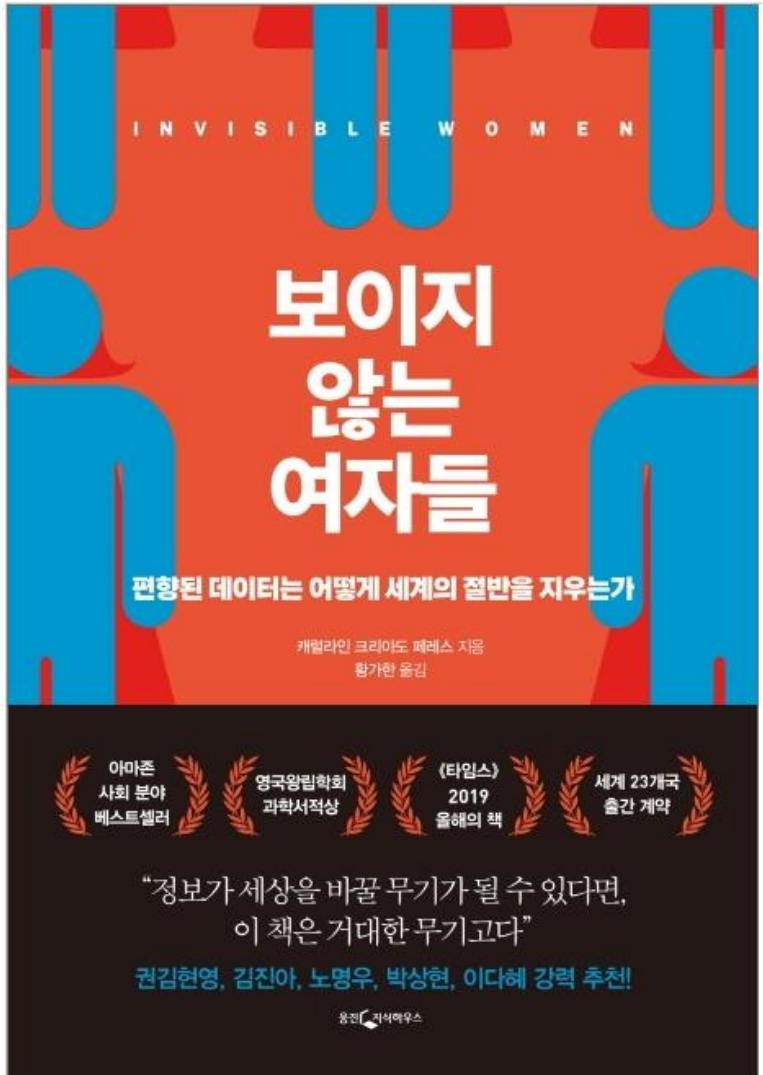
2011년 스웨덴 칼스코가시는 모든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생뚱맞은 의문이 제기됐다.

‘눈 치우기도 성차별적일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제설작업조차 남성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설작업은 주도로에서 시작해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끝났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나라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남자들은 직접 운전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남자들은 하루 두 번 시내로 들어왔다가 시외로 나가는 식으로 단순한 이동 패턴을 보인다.

- 재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디폴트 값
- 기본적인 설계의 단위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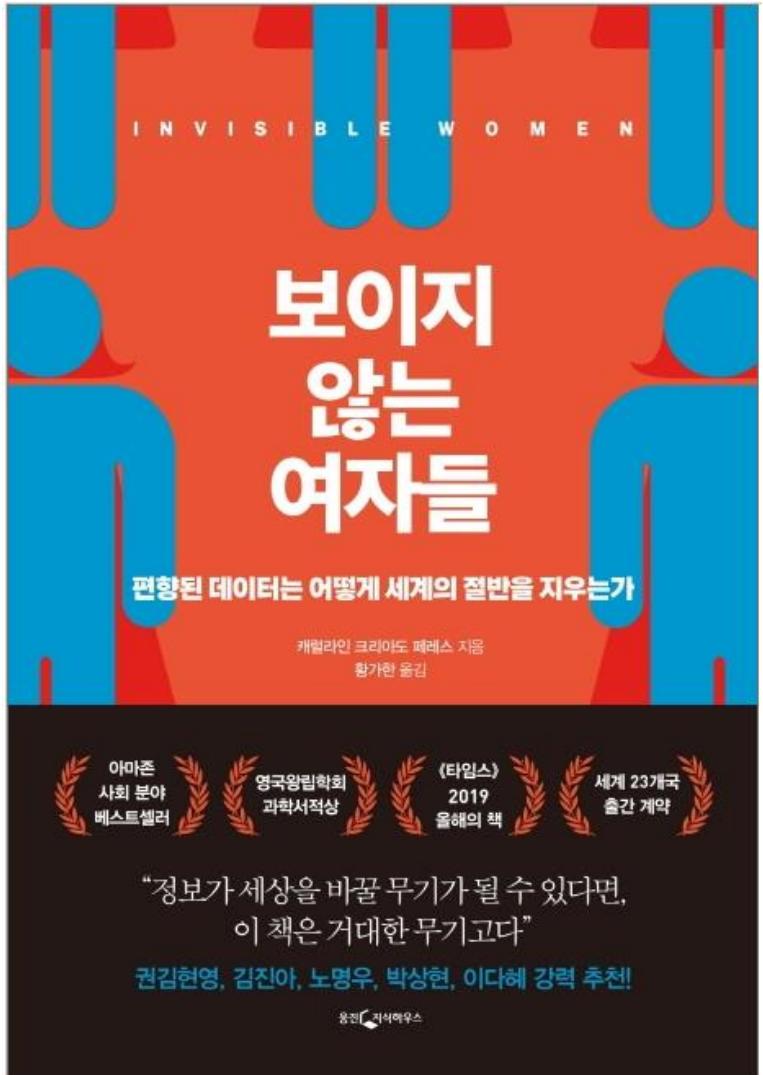


‘디폴트 값’으로서 성인 남성

서구권에서는 백인-비장애인-이성애자-성인-남성

한국에서는 때로는 백인, 때로는 한국인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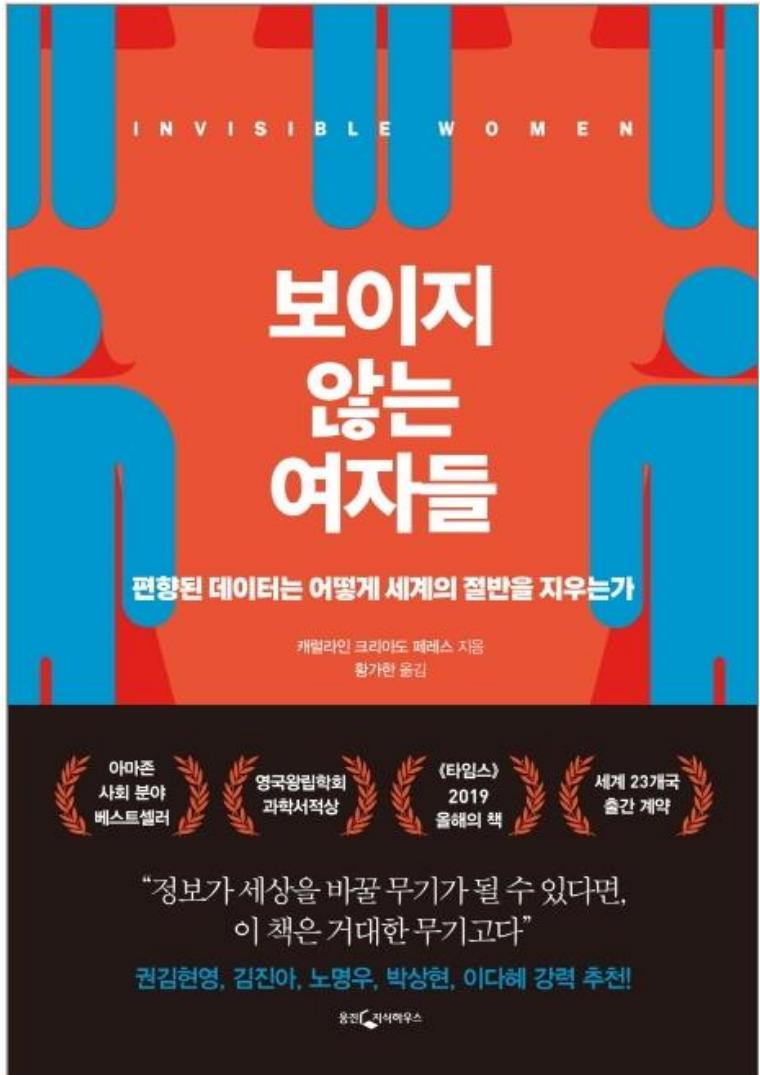


1장 눈 치우기도 성차별적일 수 있는
가 : 이동

5장 남자는 보편, 여자는 특수 : 산업
안전

8장 남자에게 맞는 원 사이즈 : 사회
적 표준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9장 사내들의 바다 : 기술

10장 효과 없는 약 : 의학 연구

11장 “이례적” 증상 : 진단과 치료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리터러시 강의에서 왠 디폴트 값 이야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자기기 와 관련될 때에 대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문제'라고 불린다면 어떨까요?

이 강의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 디지털 기기와 관련한 리터러시, 응용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 미디어에 담긴 콘텐츠를 다루는 리터러시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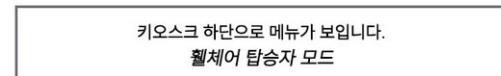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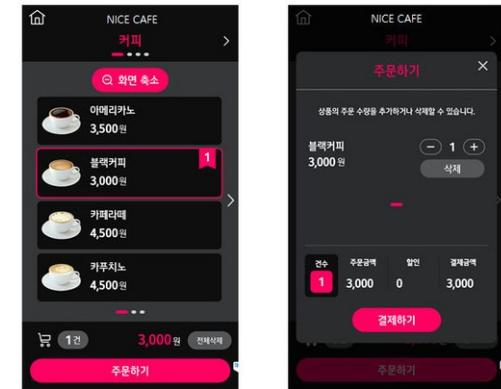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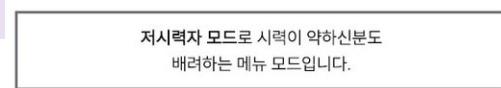


1세대 아이폰의 크기
3. 54인치



13세대 아이폰의 크기
6.1인치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독서는 슬지도사 자격증이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자격증 과정을 신청했고 시험 까지 봐서 취득한 것이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통제되고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인터넷 세상은 항상 열려 있었다.

접근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다. 매일 글을 쓰고, 기사도 올렸다. 상담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했고 팟캐스트 방송도 시작했다. 내가 담당하는 지역의 평생학습을 위한 강좌도 처음 기획하고, 줌을 통해 강의를 실현하기도 했다.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이런저런 결과를 보니 높고만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겁이 많은 사람이 더듬거리는 실력으로 하나하나 도전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온라인 입문 경험은 미디어의 세계에 조금 더 발을 담그도록 이끌어 준 계기가 된 것 같다.

참 쉽고 재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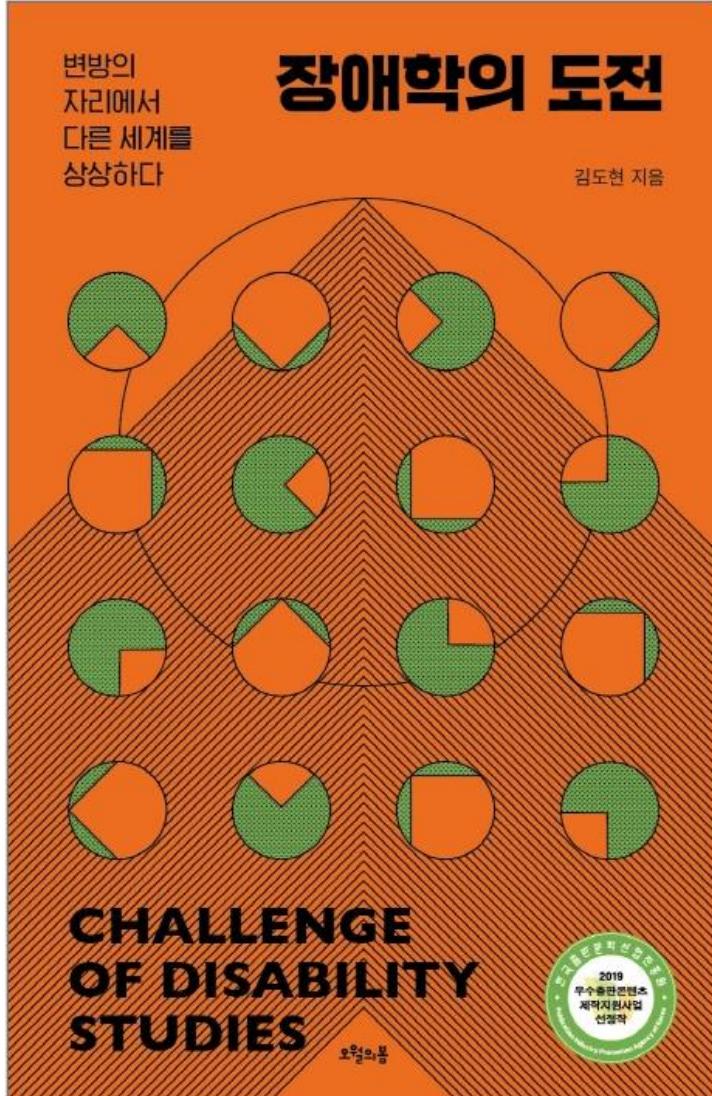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 만약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보행기를 짚고 있거나, 목발을 짚어야만 하는 상태라면 키오스크 사용은 더 어려울 것이구요. 이게 과연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역량이 부족한 문제일까요? 오히려 이걸 키오스크를 사용 못하는 사람들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는 접근 방식이 문제인 게 아닐까요?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 ▶ 노인 세대는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같은 이른바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문해력이 문제다. 고도의 압축 성장에 따른 세대 간 단절을 보여주는 한 단면(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현상 가운데 한 부분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문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양질(좋은 품질)의 일자리를 얻을 뿐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고, 지역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다. 문해력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향유(누려 가짐)할 수 있는 자산인 셈이다.
 - 권세희 기자. 에듀 동아, 2022.08.28. <문해력과 리터러시> 기사 중
- 디지털 리터러시를 도구적으로만 이해하는 접근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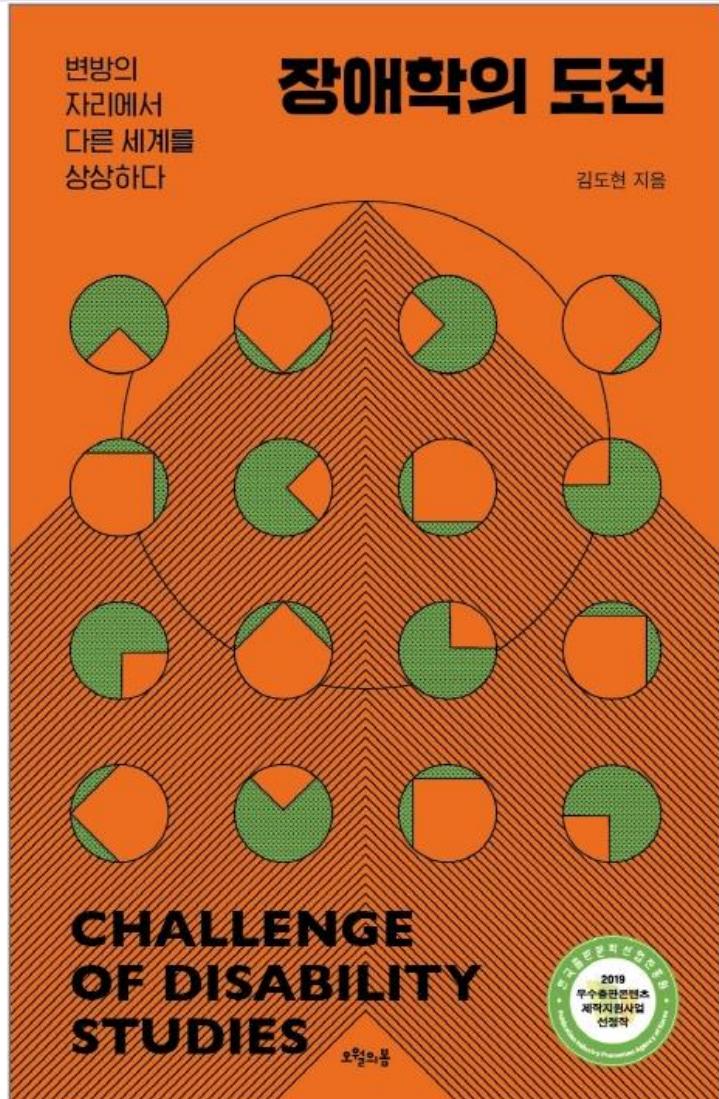


장애인의 신체가 문제일까

특정한 신체를 함양 부족, 미달로 평가하고 '장애' 여부를 묻는 사회가 문제일까.

장애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장애Disability의 Dis-ability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 ; 사회적으로 정의된 능력과 이 능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신체를 판단한 결과로서 장애 사회적 구성이 만들어낸 불능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관악구,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전동보장구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자
자가 증가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관계자, 학생,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도 운영해 일반인의 인식개
선’

관악구,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2022.08.29.) 보도자료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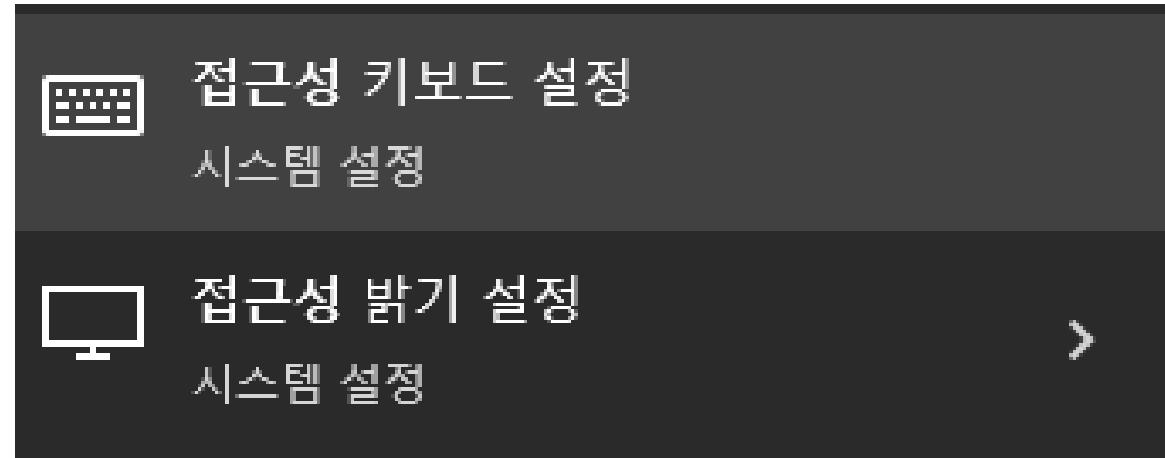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 장애 상태 ; 부상, 질병, 노화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상태
- 일시적 비장애 상태 ; 부상, 질병, 노화를 겪지 않은 상태 노안, 청력 저하, 보행 및 소화기, 탈모 등을 겪고 있지 않는 상태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의도치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특정한 신체의 접근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환경, 전자기기, 디바이스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과연 이 모든 특정한 신체에 어느 정도 해당하고 어느 정도 해당하지 않는가. '함양 미달'이라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과연 이런 전자기기들의 설계를 얼마나 고려한 문제의식일까.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컴퓨터에서 가끔 발견하게 되는 단어, '접근성' 장애를 위한 접근성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이 이용자의 편의에 얼마나 맞추어져 있는가로

1. 전자기기와 구성된 장애

이용자의 응용 능력이 문제일까?

아니면 불편하게 설계된 디지털 기기의 문제일까?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신체들을 중심에 둔 우리의 문제일까?

배제를 거의 겪지 않는 신체의 디폴트 값은 무엇일까?

성인-남성-백인(다수 인종, 다수 민족)-비장애인-이성애자...

1~2

- 여성 혐오가 결국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어진 '게이머게이트 논쟁(Gamergate)'이 불거졌고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MeToo)' 스캔들이 터졌다.
- 하지만 테크 기업들의 자산이 불어나고 기업들이 요란스럽게 '여성, 성소수자(LGBTQ+), 인종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계속해서 백인 이성애자들이 주류
- 테크 산업은 커다란, 때로는 거대한 개인의 부를 만들었다. 이 자본 중 대부분은 남자에게 흘렀다. 테크 기업 경영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테크 산업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20인 중에서 여자는 단 둘뿐이다.

Margaret O'Mara. (2022.08.26.) MIT Technology Review <테크 업계는 대체 왜 젠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 中

전자기기가 특정한 신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면, 우리의 시스템과 체계는 어떨까.

2. 페미니즘과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

임소연



임소연

여성과학자들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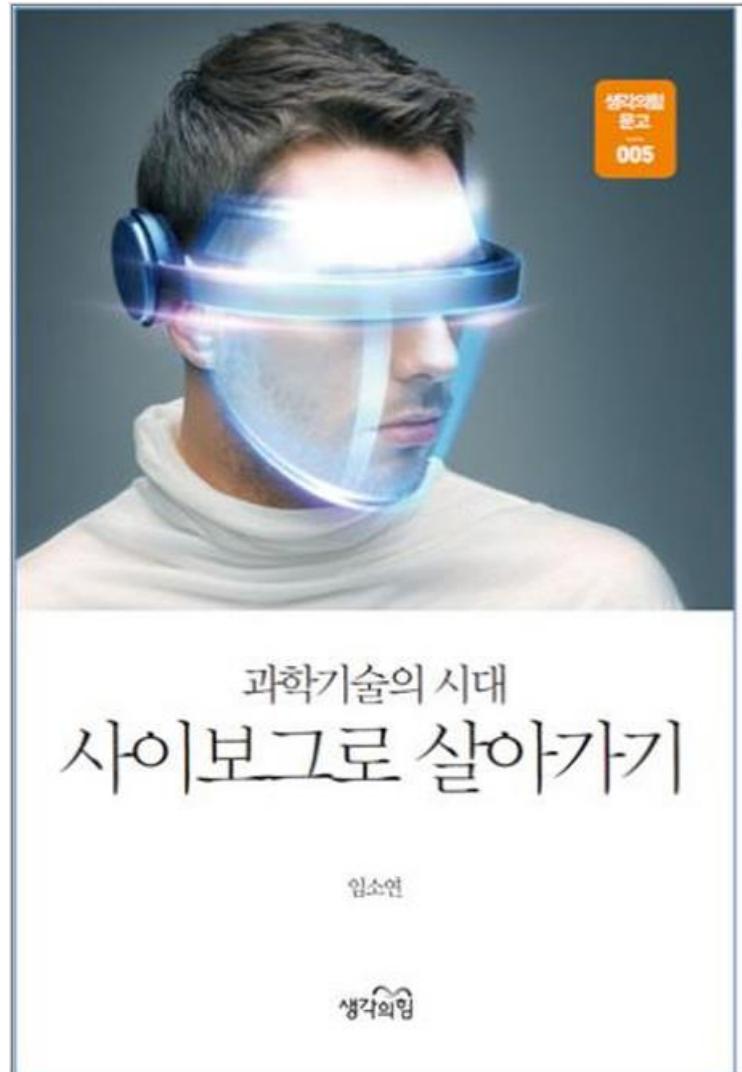
과학기술사 (史) 학 ; 과학기술의 역사 속에서 과학기술, 자연과학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거기에 내포된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밝히는 학문.

→ 과학기술과 젠더의 관계

2. 페미니즘과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

- ▶ '과학기술과 여성이 거리가 멀다'
 - ▶ '성형한 여자보다는 자연 미인'
 - ▶ '어머니 자연'
- 여성은 자연적이고, 과학기술과 고리된 존재라는 편견

2. 페미니즘과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



- 라식, 라섹 수술을 경험한 신체는 과연 완전히 자연스러운 인간인가?
-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해 무수한 백신은?
- 임플란트나 치아 보철물, 교정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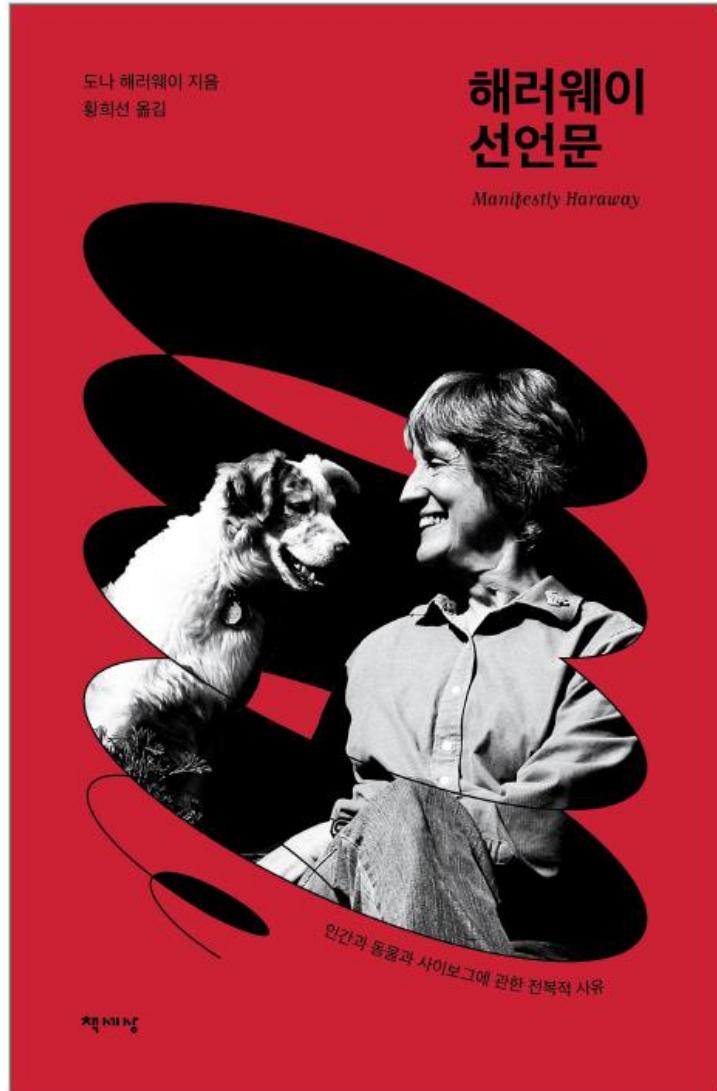
2. 페미니즘과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



김용화 감독의 <미녀는 괴로워>(2006)

- 여성과 과학기술, 성형, 인공적 미인의 결합
- 여성에게 강요되는 외모 관리, 자연미인이라는 모순된 요구

2. 페미니즘과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



- ‘나는 여신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
 - 도나 해러웨이(생물학자, 페미니스트)
 - ‘상황적 지식(들)’ : 일부의 선택된, 객관적이라 가정된 목격자들로부터 출현한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기준을 비판하기 위한 개념

2. 페미니즘과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



연합뉴스 |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신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제보

#대통령 #로우주정보 #한남노 #대통령정보 #한남

뉴스홈 | 최신기사

"모든 인위적 분만, 아이 건강문제 발생 위험↑"

송고시간 | 2018-03-27 10:41

한성간 기자
기자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유도분만, 제왕절개 분만 등 모든 인위적 형태의 분만은 아이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 간호·조산대학(School of Nursing and Midwifery)의 해나 달렌 교수 연구팀이 2000~2008년 사이에 만기 출산한 건강한 여성 49만1천590명과 아이들의 생후 5년간 건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과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26일 보도했다.

분만 유도(induction)와 분만 촉진(augmentation) 등 모든 형태의 분만 중재(birth intervention)와 제왕절개로 출생한 아이들은 저체온증, 황달, 대사장애, 습진, 호흡기 감염 등 단기 또는 장기적인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달렌 교수는 밝혔다.

GS SHOP
특급 혜택 받으세요! ♦ (5,000) (10,000)

분만 유도는 옥시토신으로 자연진통 발생 전에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것이고 분만 촉진은 자연진통이 이미 발생했지만, 수축력이 부족해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진통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진통 유도나 진통 촉진으로 태어난 아이는 자연 분만으로 출생한 아이들에 비해 활달이 나타날 가능성이 3배 높았고 수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99%
99%
99%

여성의 몸이기 이전에 아이와 공유하는, 공유되어야 할 몸으로서 여성의 몸을 상상

그 결과로서 형성된 '어머니 자연'을 본받아야하는 여성

2. 페미니즘과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

과학기술의 핵심이라 손꼽히는 합리성, 객관성이 근대적 지식 체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과학기술로부터 거리가 먼 여성은 곧 근대적이지 못한 여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컨대 문명의 반대말은 (어머니)자연이기도 하지만, 야만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 주어지고 할당된 어머니 역할을 거부한 여성들에게 손쉽게 야만적이라는 수식과 함께 의심이 뒤따라온 것이다. 자연이 변덕스러운 존재로서 정복이 필요한 대상이라면, 야만은 계몽과 타도의 대상으로 손쉽게 상상되어 왔다. 계몽의 대상이든 정복의 대상이든 여성의 위치는 가정으로 할당되고, 이런 여성들을 책임지고 훈육하는 체계로서 가부장제는 정당화된다.

2. 페미니즘과 과학, 페미니스트 인식론

	경험론	입장론	포스트 모더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지식의 위계화 비판	방법론적 규범, 실증주의에 여성의 입장과 경험을 기입하기	지배적 학문장 내부에 복합성과 관계에 집중, 상호 교차하고 결합하는 여성의 위치를 탐구	지식 장의 타자화·식민화를 거부, 억압적인 지식이나 권력 대신 힘 갖추기를 추구
한계	기존 지식 체계는 유지	공통된 경험을 전제, 생물학적 본질주의로 회귀	상대주의로 귀결될 위험
연구자에 대한 이해	연구자의 시선에 차별과 편견이 기입되어 있음	연구자의 참여적 가치관에 따라 결과의 객관성이 변화 → 중립을 가장한 연구자를 대신해 인종, 계급, 성차별에 비판적인 연구자가 필요	어떤 사회적 위치, 통합적 정체성도 기대하지 않으며 상황·귀속적·맥락적임을 강조
90년대 이후 변화	절대적 토대로 객관성 대신, 사회적 증거 기준 자체의 비객관성을 비판	다층적·복합적인 삶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여 모순·상충되는 여성들의 위치를 탐구	연구자와 대상 사이의 상호 작용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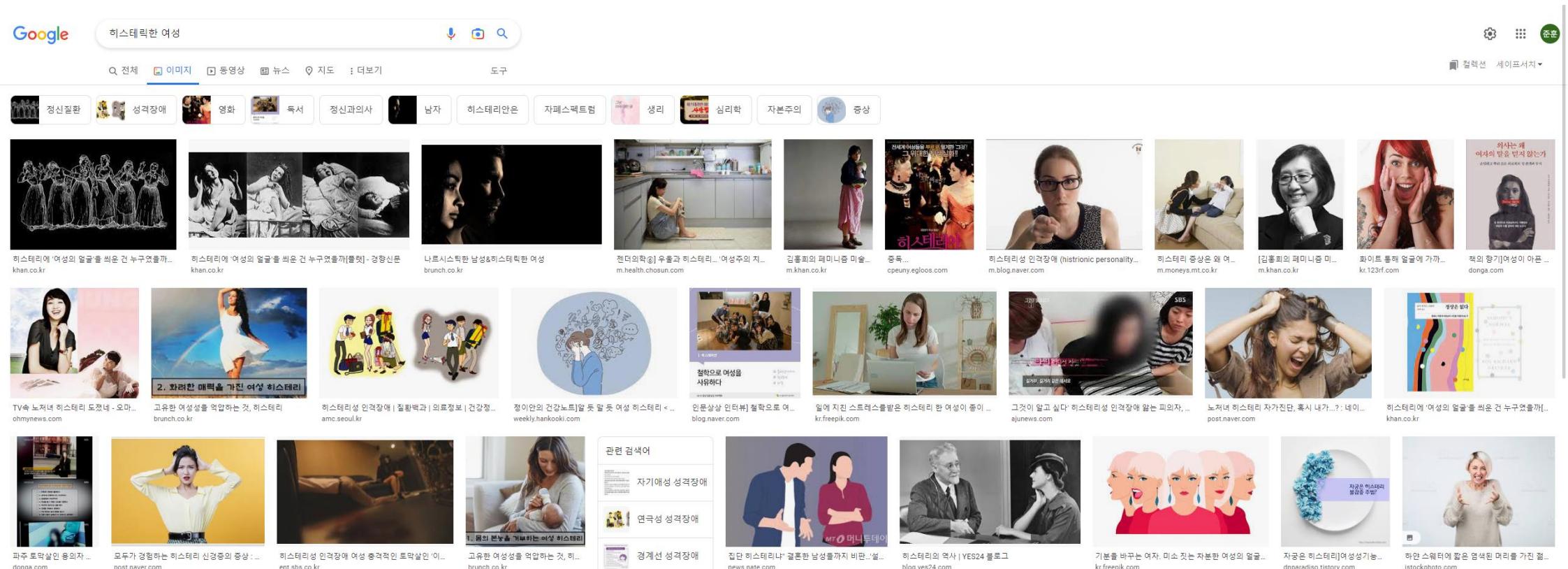
3.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안전공간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의 결과로 학교가 어떻게 안전공간으로서 여학생들에게 인식되는지, 또한 그것이 폭넓은 의미의 건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관계적 환경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철학적인 접근에 바탕을 둔 안전공간의 개념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곳'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특정한 지리적 범주가 얼마나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요소는 그곳에서 누구(더 넓게는 비인간적 것까지 포함하여)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점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이는 관계적 환경과 관련성이 갖는다.

박수경. (2022). 학교는 여학생에게 어떻게 안전공간으로 인식되는가? : 관계적 환경 관점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1), 80-98. 국문초록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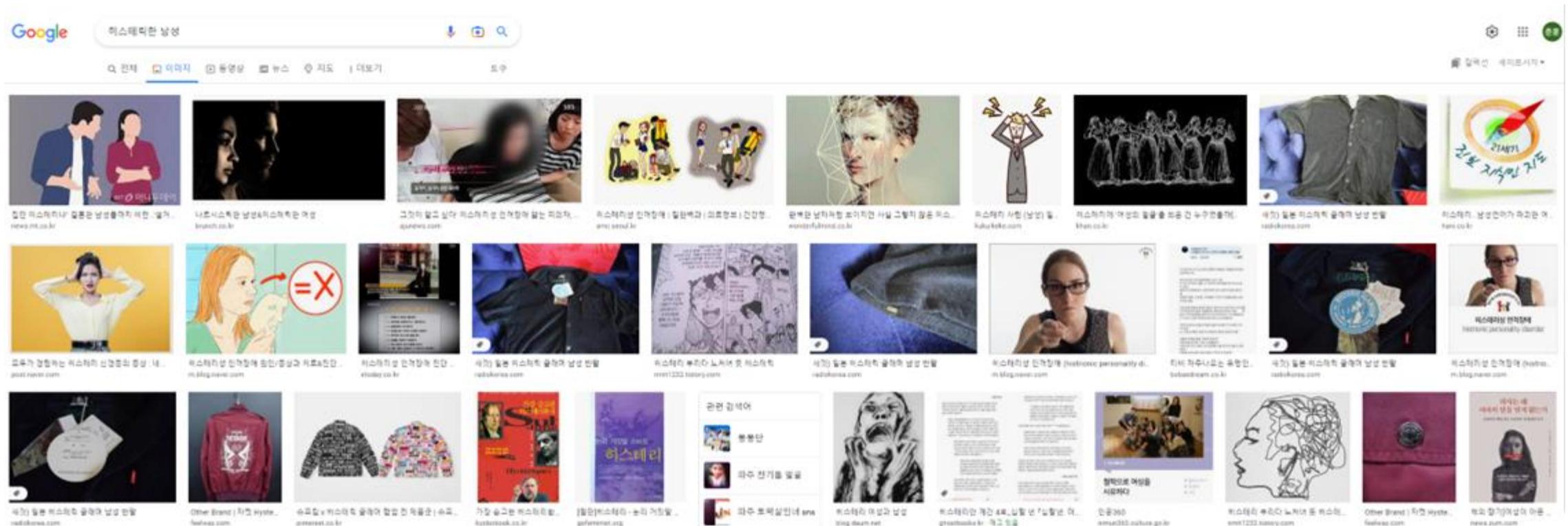
3.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히스테릭한 여성' 검색 결과



3.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히스테릭한 남성' 검색 결과



3.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원제 MANSPALIN)

- 대화 상황에서 손쉽게 신뢰와 존중, 대우를 얻어내는 남성 화자들, 이들에 비해 더 많은 의심과 검증을 받아야 하고 침묵을 많이 경험해야 하는 여성들
- 이런 대화 상황의 배치가 만들어내는 여성의 침묵과 과잉 대표되는 남성, 남성 중심의 사회

3.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뉴스 밀당365 아미랑 명의 좋은병원 건강서적 약 이야기 | 아나파퀴즈 힐링여행 건강강좌 헬스케어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Q

[젠더의학⑥] 우울과 히스테리... '여성주의 치료'의 근거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5.21 19:00

'자궁의 병' 아닌 '억압'의 결과... "여성주의적 관점이 여성 살려"

전문가들은 사회구조적인 억압이 여성들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말한다./사진=케티 이미지뱅크

'여성성'이 병(病)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고대부터 여성은 '히스테리(Hysteria)'라는 병을 갖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졌다. 히스테리는 정신적·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증을 의미한다. '히스테리'라는 명칭 또한 자궁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히스테라(Hystera)에서 유래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히스테리를 자궁의 병이라고 불렀으며, 플라톤도 자궁을 방치하면 온갖 질환을 일으킨다고 했다.

현대에선 어떨까. 19세기 프랑스의 신경병리학자 마틴 샤르코가 히스테리는 남성에게도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증은 여성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은 '노처녀 히스테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에게 특유의 신경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정신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원인보다도 사회학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한 '여성주의 치료'도 대두된다.

현대에선 어떨까. 19세기 프랑스의 신경병리학자 마틴 샤르코가 히스테리는 남성에게도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증은 여성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은 '노처녀 히스테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에게 특유의 신경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정신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원인보다도 사회학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한 '여성주의 치료'도 대두된다.

임. 이제 두려워 마세요
아미랑과 함께하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의료계뉴스

"여성성"이 병(病)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고대부터 여성은 '히스테리(Hysteria)'라는 병을 갖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졌다. 히스테리는 정신적·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증을 의미한다. '히스테리'라는 명칭 또한 자궁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히스테라(Hystera)에서 유래됐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히스테리를 자궁의 병이라고 불렀으며, 플라톤도 자궁을 방치하면 온갖 질환을 일으킨다고 했다.

현대에선 어떨까. 19세기 프랑스의 신경병리학자 마틴 샤르코가 히스테리는 남성에게도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증은 여성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은 '노처녀 히스테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에게 특유의 신경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정신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원인보다도 사회학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심리를 치료하기 위한 '여성주의 치료'도 대두된다.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1/2021052101780.html

3.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논단

“가짜 미투 원하는 심리 만연… 성폭력 피해자에겐 공포로”

입력 2021.09.16 17:00

240 7

[김희원의 질문] 박진성 시인 소송 반전 판결 이끌어낸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만나 성폭력 범죄에 엄중 해진 동시에 가짜 미투 의심도 커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국의 미투 바람은 진원지인 미국보다 어찌면 더 강하다. 성폭력에 대한 시각은 전에 없이 민감해지고 엄중해졌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검증 요구 또한 이토록 강한 때가 없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남녀의 머니먼 간극은 젠더 간 인식 격차의 핵심이고 갈등의 근원이다. 이 혼란한 현실을 상징하는 일이 박진성 시인 사건이다. 한때 ‘가짜 미투의 희생자’ ‘성폭력 무고 피해자’로 통했던 박씨는 얼마 전 두 건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성희롱·스토킹이 사실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6년 10월 박씨 성폭력 첫 폭로자였던 98년생 김현진씨(5월 1,100만 원 배상 판결), 20년 전 연인관계였다고 박씨가 주장한 유진목 시인(8월 1,000만 원 배상 판결)은 피해자임을 인정받기까지 왜 이렇게 많은 비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을까. 이들을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 가짜 미투를 찾으려는 심리를 부추긴다”며 “피해자에게 거짓이라는 비난은 공포 자체”라고 말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성범죄 피해자에게 씌워지는 무고의 굴레에 대해 물었다.

▶ “가난하고 기댈 데 없는 피해자 무고 몰리기 십상”

▶ -박진성 시인은 성폭력 무고로 온갖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고 많은 이들이 사실로 여겼다. 이제는 박씨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지만 한동안 ‘거짓 미투의 대명사’로 꼽혔던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남성들의 편의에 따라, 손쉽게 의심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진술과 증언

3.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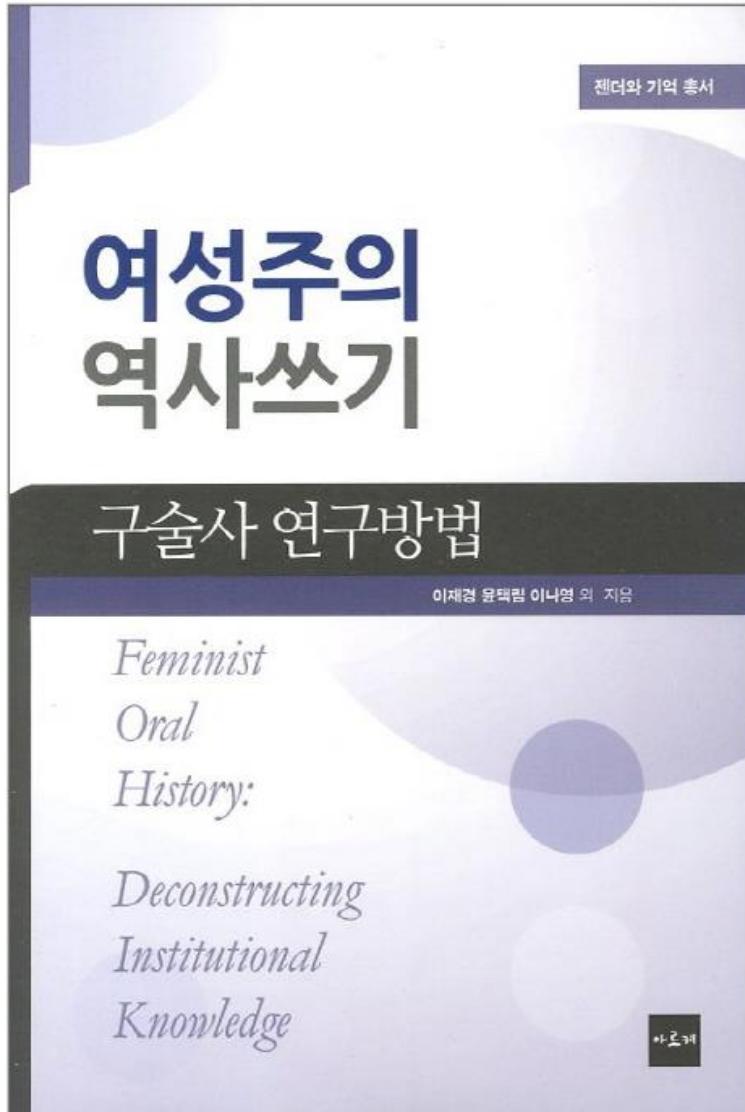
- ▶ 비합리적, 비객관적인 여성의 증언을 손쉽게 의심하는 사례
 - ▶ 물리적이거나 과학적 진실, 공적인 발화는 대부분 남자에게 묻고 답하는 현실
 - ▶ 학교 현장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따라붙는 의심, 검증의 눈초리
- 그럼에도 말과 글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

3.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 여성구술기록은 그간 배제되고 침묵당해 왔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특수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여성구술기록이 주요한 수단이 된다.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외연적인 특수성을 밝혀야 한다. (중략) 구술사는 개인의 경험을 정치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기획과 만난다. 즉, 여성구술기록은 여성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역사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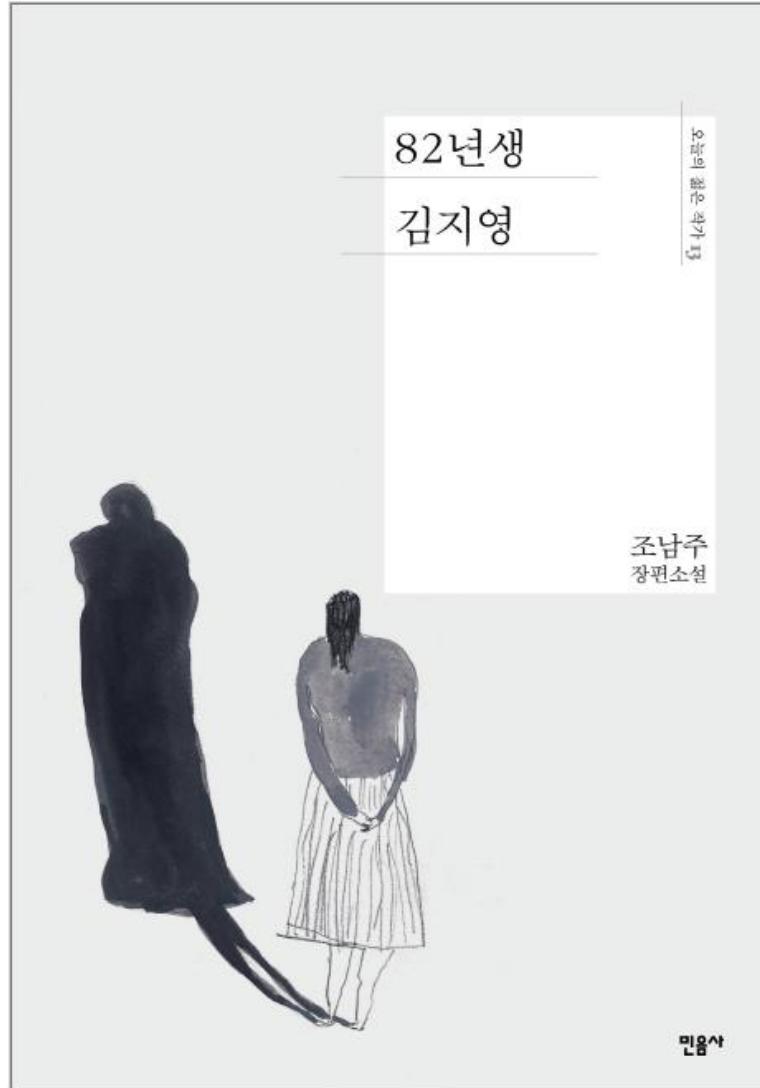
정은선. (2018). 『여성사 관점의 여성기록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5-86쪽.

3. 여성의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학교 현장



▶ 한국에서 여성구술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위안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진술하는 폭로로서, 국가 단위의 피해자 의식을 확장하고 구 일본 제국의 배상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생애사 구술이나 자문화기술지와 같은 본격적인 연구 방법론들을 차용하게 되고, 여성의 경험을 구술로 남기고 다시 기록하면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의 의미가 엄청난 저항적 기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처음 주목을 받을 당시에는 국가 단위의 기획이자 일본제국에 대한 피해 폭로로서 주목 받던 여성의 생애사 구술이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3~4



- ▶ 왜 여성의 말은 기록되고 전해져야 하는가.
- ▶ 이 소설을 두고 일어났던 문학계 주류 남성들의 거친 비판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 여성의 말을 기록하고, 여성의 글이 기록으로 남겨질 때 얻는 저항적 힘은 무엇인가.
- ▶ 이 저항적 힘이 응집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규범으로서 '리터러시'?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과
독자 시대의 한국문학

10
한국문학의
독자 시대

#문학은
_위험하다

소영현, 양윤의, 서영인, 정은경,
백지은, 강지희, 정은경, 윤윤, 김미정,
차미령, 양경연, 조연정, 임아영

민음사

- ▶ 여성의 말하기에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이 많다면 과연 여성의 글쓰기라고 해서 다를까?
- ▶ 남성, 지식인, 이성애자 위주로 일색인 한국의 문학사
- ▶ 문학사가 억압해온 것은 비단 여성 작가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글쓰기 자체
- ▶ 그럼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학에의 반성과 여성문학사 서술의 노력
- ▶ '신경숙 표절 논란'만으로 설명 할 수 없는, 문학의 위기와 대안적인 문학의 필요성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한국 문학의 여성작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름들 ; 나혜석, 강경애, 지하련, 박완서, 박경리, 오정희, 공지영, 신경숙, 양귀자, 황정은, 배수아, 은희경, 한강, 김명순 ...
- ▶ 한국 문학 교과서에 실린 여성 작가? 그에 대비되는 혹은 그 이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남성 작가는?
- ▶ 이해조, 이광수, 이해조, 현진건, 염상섭, 최서해, 김유정, 이상, 이태준, 이효석, 채만식, 김동리, 황순원, 손창섭, 이미륵, 최인훈, 김승옥, 이청준, 조세희, 김정한, 조정래, 현기영, 김훈...
- ▶ 박완서, 박경리, 양귀자, 은희경, 오정희, 신경숙, 윤영수, 공선옥, 김여령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3Rs(reading, writing, arithmetic)' ; 읽고 쓰고 계산하는
- ▶ 유네스코(UNESCO) ;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
- ▶ OECD ; 특정한 능력과 행동양식으로 보면서 일상생활, 가정, 직장,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능력'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국제 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문해력의 핵심은 '기본권'으로서 문해력, 즉 누구에게나 읽고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
- ▶ 우리나라에서 역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법'에서 정의,
 - 2조(정의) 1항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조(정의) 3항 "문자해독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 제 6장 문해교육(제39조~40조) ; 문해교육의 실시, 문해교육센터 설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관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기본권으로서 문해력, 리터러시라는 관점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기본권으로서 문해력, 리터러시 개념의 한계
- 정형화된 규범에 따른 교육과 제도로의 편입
- 정상적인 성인의 문해력이라는 표준과 미달이라는 구분 → 지원과 동시에 불능을 생산하는 제도 ; '문맹', '까막눈'과 같은 차별표현이 기반하고 있는 장애 비유
- 함양을 위한 교육, 지도의 방식에 따라 단순히 습득의 대상으로 환원되어 버리는 문해력, 리터러시 교육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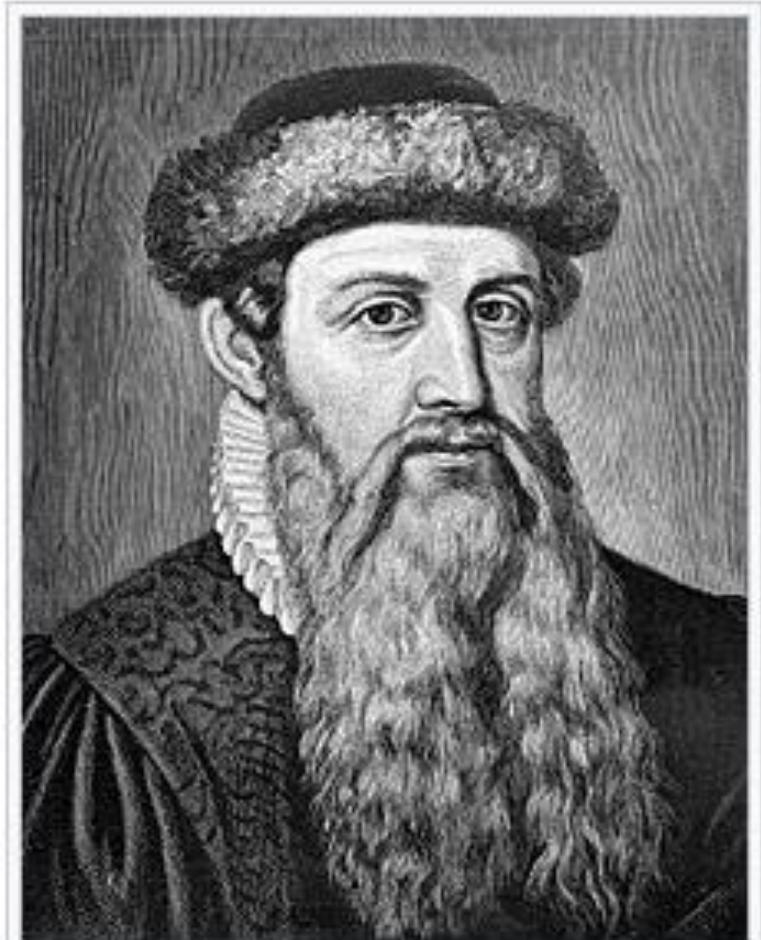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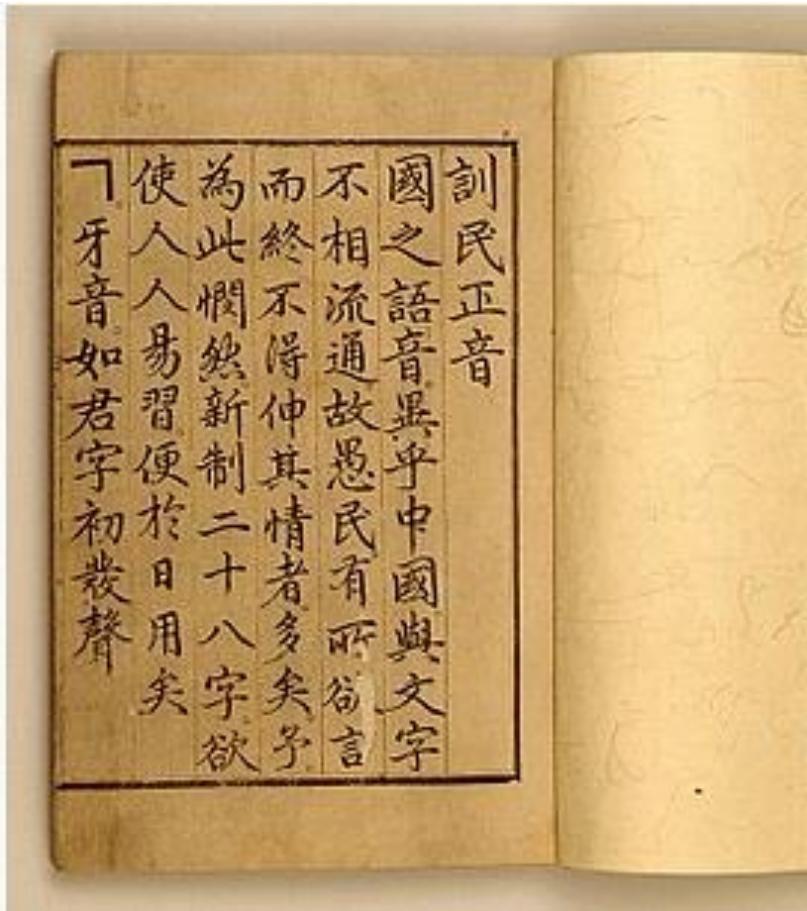


사진 자료는 위키백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항목

- ▶ 근대 체계의 일부로서 문해력의 역사적 등장
 - 금속활자의 등장으로 가능해진 대량 인쇄, 본격적인 인쇄·출판 산업의 시작
 - 신문, 책 등 읽을 거리(미디어) 생산 능력의 증가와 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자수요
 - 라틴어를 대신해 민족어와 구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한자라는 어려운 문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훈민정음
 -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된 문자언어
 - 서구의 기계적 변화와 달리 직접적인 문자언어 개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변화와 그에 대한 지식인 층의 반동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식자(識字)'라는 지식인 계층이 겪게 되는 위기, 문자 언어의 보급과 읽을 거리의 보급이 이끌어낸 기본권으로서 문해력, 리터러시
- ▶ 근대 미디어로서 신문, 책의 보급과 함께 읽고 쓸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와 제도적 장치(공교육) 요구
- ▶ 문자 언어 보급 역시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활로, 그럼에도 여전한 정도의 차이와 그에 따른 차등화, 위계화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사진 자료는 위키백과 '독립신문' 항목

- ▶ 인쇄술의 발전과 더불어 문자 언어의 본격적인 보급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로서 신문의 보급
- ▶ 최초의 순한글체 신문이자 미디어로서 '독립신문'
- ▶ 문자 보급의 또 다른 제도로서 공교육, 학교 현장의 문제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근대 이전의 책 읽기 '공동체적 낭동' 행위와 비교되는 '개인적 묵독'
- ▶ 책을 읽는다는 행위를 넘어선 '독서'라는 행위의 의미, 이를 뒷받침할 조건들
- ▶ 젠더에 따라 불평등하게 주어졌던 독서의 기회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여성 작가 김명순을 소설화한 김연실전에서 김동인은 연실의 독서 범위를 연애소설에 한 정된 협소한 차원으로 환기하고, 연애소설 독서가 그녀의 성적 방종과 허영심을 잉태한 원인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 ▶ 여성의 독서에 대한 이 왜곡된 시선은 고스란히 여성 글쓰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김동인은 김연실의 문학 창작 행위를 연애소설 중독에서 발로한 허영심과 성적 욕망의 표현으로 형상화했다.
- ▶ 식민지의 계몽 지식인들에게 여성의 독서는 조선의 근대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긍정적 사건인 동시에 개조의 기획을 위협하는 불안으로 인식
- ▶ 근대 여성 잡지는 여성 독서에 관한 각종 담론을 형성하고 유포한 장이었다. 여성들에게 근대적 독서를 계몽한 기관인 동시에 '필독서류'와 '금지서목'을 분류하고 여성들의 독서를 지도하는 한편, '여성용' 읽을거리 혹은 '여성적' 읽을거리를 구성. 배치하면서 여성들의 독서 취향을 형성한 미디어

4.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 개념

- ▶ 근대적 기본권으로서 전통적 '리터러시' 개념의 한계
-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도 나타났던 것과 동일하게 미달을 구분, 함양과 지도의 시선을 답습
- 근대 초기 여성에 대한 처우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화된 관념
- 모범적 독서와 금기시되는 독서를 구분하여, 권장과 탄압이라는 억압을 반복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근대 문학으로서 literature 의 어원 리터러시literacy

-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문학'의 위치를 대신하던 것은 벨 레트르(아름다운 언어)
-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
- '민주주의의 쌍생아' ; 근대 대의민주제를 만들며 함께 탄생하게 된 대리 표상, 대리 재현의 제도로서 문학·예술

(정의진, (2018). 「문학의 역사성, 특수성, 정치성 - 민주주의와 문학에 대한 비교연구 시론 (2) - 」. 『한국학연구』, 48, 351-380.)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 근대 문학으로서 literature 의 어원 리터러시literacy
- 모범적인 언어의 사용으로서 공표되고, 공교육으로 편입되어 온 문학 작품들
- 남성 중심적인 위계와 역사, 악습 속에서 지속하여 재생산되어온 남성들의 문학 / 단절되어 온 여성들의 문학
- 공교육의 체계 내에 숨어든 교육 내용의 남성 중심성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 근대 문학으로서 literature 의 어원 리터러시literacy
-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주관하여 한국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신춘문예 제도
- 특정 '대가'의 모범적인 글과 생애를 기리는 '문학관' 시스템
- 남성 위주로 점철된 서술, 남성 인물, 남성중심적 시선으로만 묘사되는 여성과 아이·가족·노인 →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묘사, 해석, 인물화, 재생산의 틀이 부재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 근대 문학으로서 literature 의 어원 리터러시literacy
-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주관하여 한국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신춘문예 제도 ; 모범이 되는 글쓰기와 그 규범을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당선자, 그를 둘러싼 심사평가와 학술 연구 제도, 이러한 제도에 편입되지 못하는 '미달'로서 낙선자
- 특정 '대가'의 모범적인 글과 생애를 기리는 '문학관' 시스템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문학 교육이 문해 교육에 남긴 남성중심성

- 남성 위주로 점철된 서술, 남성 인물, 남성중심적 시선으로만 묘사되는 여성과 아이·가족·노인 →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묘사, 해석, 인물화, 재생산의 틀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문해교육으로서 문학교육
- 여성구술기록의 필요성 처럼 여성문학사, 대안적 문학사 기술의 필요성
→ 페미니즘 공교육화 논쟁?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청원종료]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인 [naver - ***](#)
· 청원시작 2018-01-06 · 청원마감 2018-02-05

종료됨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213,219 명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청원기간

21-05-05 ~ 21-06-04

(상) 초중고교 페미니즘 의무화 청와대 국민청원
(우) 페미니즘 공교육 편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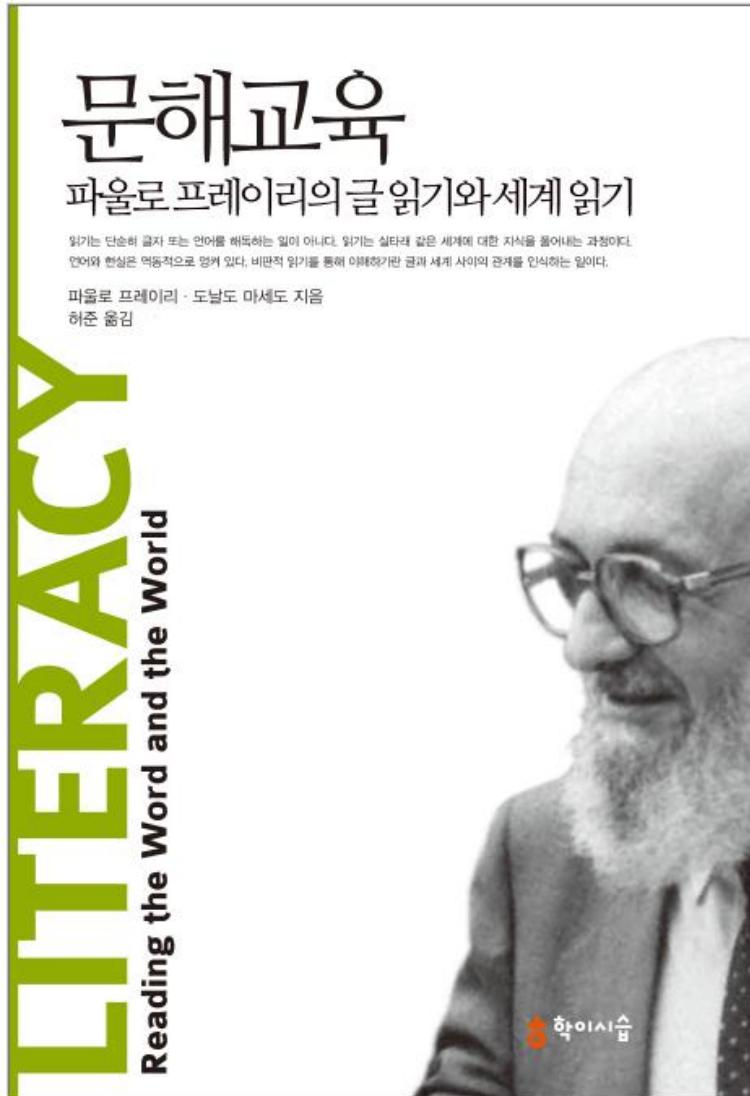
청원일인 5월 5일 새벽 인터넷을 통해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할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분을 살 일이나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환상

- 근대적 문학의 (서구-백인-)남성-이성애자 중심 구성, 이를 모범으로 삼아 답습하고 재교육하고 있는 문학교육, 리터러시 교육의 선두로서 학교 교육의 내용, 교육과정
- 남성 위주로 편향된 문학을 가르치는 국어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또는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채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리터러시 교육에 불과한가. 최소한 이런 환경에서 여성의 글쓰기는 어떤 오독에 시달리게 되는가.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 공교육의 체계 재생산 과정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판적 사고와 비판문해, 비판적 교육론
- ▶ 자신을 둘러싼 맥락과 사회, 정치, 경제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읽고 기존의 지식 체계와 쓰여진 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문해의 방식이자 리터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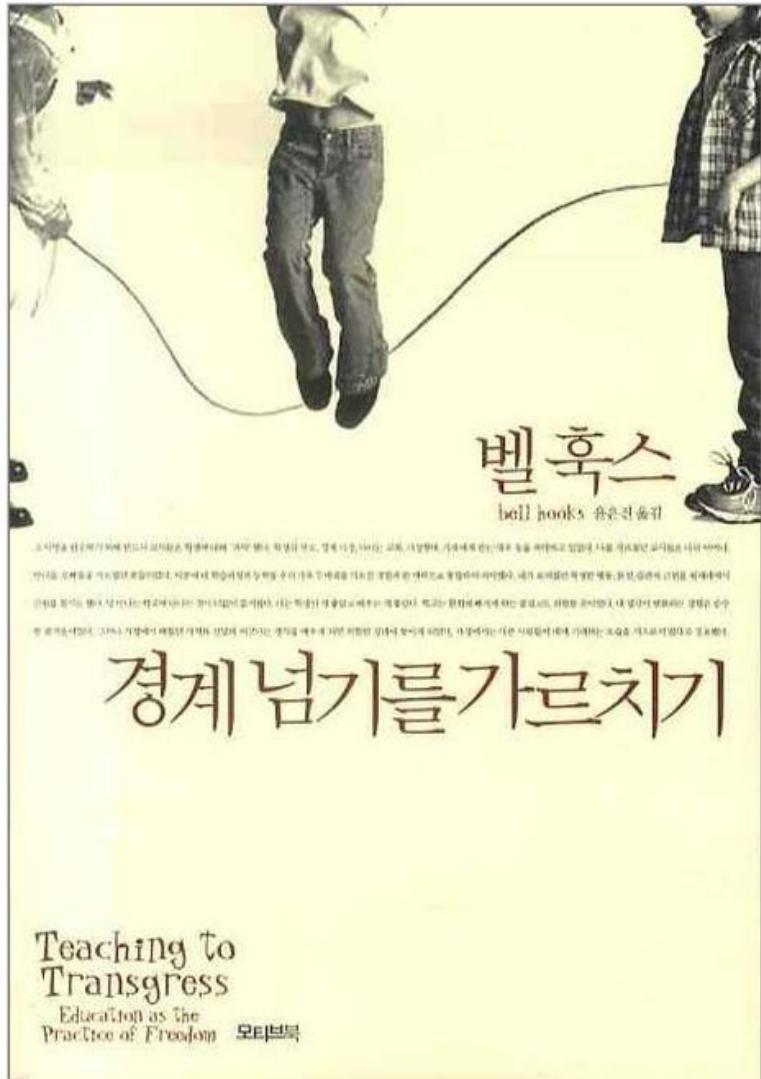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비판적 읽기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그 연원이 깊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비판적 사고 교육에 관심을 가져 왔다.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이 바로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반영되어 있다. 당시 '1. 고등학교 국어(1)의 목적'에는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그중에 "2.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문교부, 1955⁷: 8)가 있다. 이는 비판적 시민 양성이 고등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 중의 하나였음을 알게 한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이른바 사회성이 더 잘 작동하는 건강한 민주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 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에서 당시 고등학교 '국어(1)'의 '읽기' 영역에서도 "^. 남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문교부, 1955⁷: 12)라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 혹은 비판적 읽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초창기부터 강조되어 온 내용 범주였다.

*위 자료에서 말하는 비판적 읽기는 프레이리의 비판 문해와는 거리가 멀지만, 한국의 국어교육 과정에 오래전부터 사회에 대한 비판을 목표로 삼고 있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인용임.

이성영. (2021). 「공감적 읽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 『독서연구』, 60, 13쪽. 이성영이 참고한
문교부 자료는 문교부. (1955).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6호 별책.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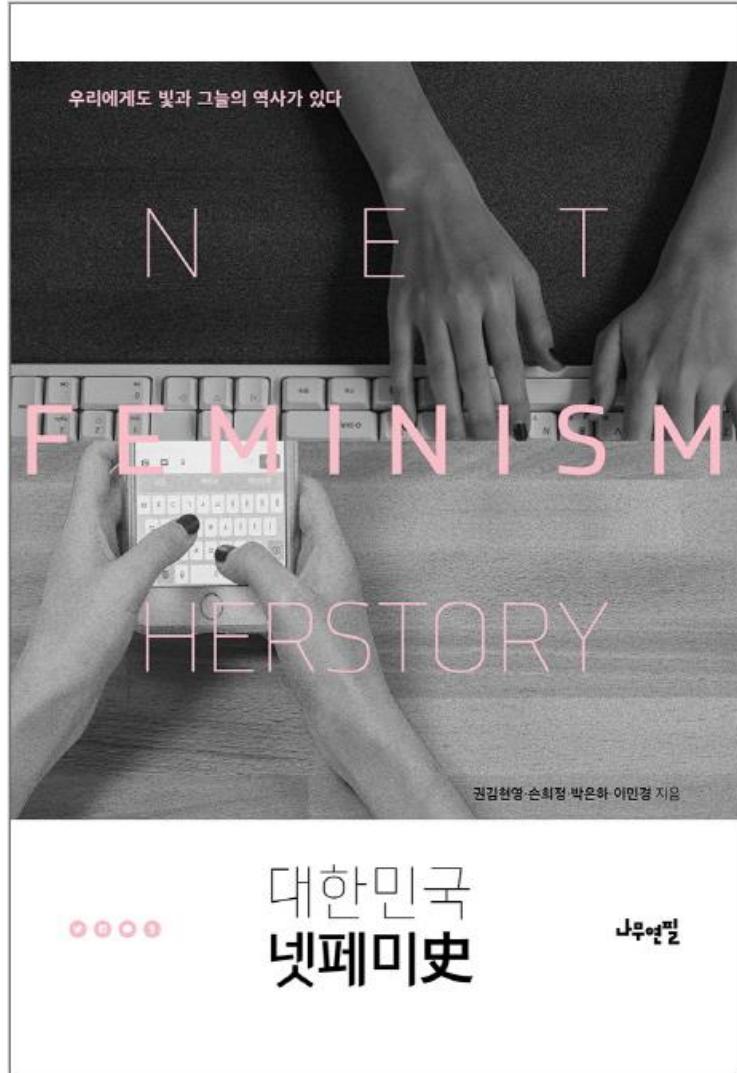
▶ 벨 흑스와 페미니스트 교육론

- 흑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저술과 교육 실천으로 지속해온 벨 흑스는 프레이리의 비판 문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지향을 보여준 교육가로 평가 받는다. 젠더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텍스트와 세계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 벨 흑스는 학교 현장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경험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법에 대해 가르치고 이를 교육론으로 정립하고자 노력을 선보였다.

5. 리터러시 교육의 내용이자 규범으로서 문학

- ▶ 한국의 국어교육 과정에서는 “비판적 읽기” / “비평적 읽기” / “비평” 용어가 혼용
 -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해석과 교육 방안의 수립,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더욱 다양하게 진행
 - 학자, 연구자, 교육자 간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용어 역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
- ▶ 단순한 작품의 평가로서 ‘비평적 읽기’~문학에 한정한 ‘비평’ 등으로 인해 소실되어버린 비판적 읽기 페미니스트 교육론의 맥락

5~6



▶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특히 거기에 전 더적인 경험이나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유독 거 세지는 의심과 검증의 시선, 반동backlash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교육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경험과 글, 미디어(콘텐츠)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6. 미디어와 페미니즘 리터러시

이 강의에서만 일시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 컨텐츠와 관련한 읽고 쓰고, 이해하고 향유하는 능력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 과학기술(사)에서 배제의 대상이 되어온 여성, 합리성과 객관성에서 타자로 여겨져온 여성, 당대의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부터 끝없이 들러붙는 젠더에 따른 역할 할당
- ▶ 여성 구술사가들이 주목했던 발견한 여성 구술의 의의 ; 여성과 같은 소수자의 기록을 남기고 그들의 목소리와 이야기, 경험을 주의 깊게 경청·탐독·향유하고 지속하여 이어갈 필요

6. 미디어와 페미니즘 리터러시



지난 경험과 오랜 고민의 대답. 'Me, Too'

저소득층 노동자계급 가정에서 태어난 버크는 유년기와 십 대 시절 성폭행과 간강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어머니는 그가 폭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버크의 전기에 따르면 과거의 이러한 경험은 그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1997년 버크는 열세 살 폴인 소녀로부터 성학대 경험을 들게 된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녀를 제대로 둡지도 못했다. 이 경험은 버크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는 이후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떤 말을 들려줘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찾은 최선의 답은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Me, Too'였다. 그는 이 말은 공감을 통한 권한 부여로 봤다.

'나도 너처럼 나쁜 일을 겪어봤다', '네가 느끼는 수치심과 절망에 공감한다', '너의 슬픔과 고통을 더는 일에 나도 동참한다'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2006년 뉴욕에서 젊은 유색인종 여성을 위한 비영리단체 '저스트 비(Just Be)'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미투(Me Too) 캠페인에 나섰다. 성폭력을 겪은 여성의 공감을 통해 유대 의식을 강화하려는 운동은 이때 세상으로 나왔다.

침묵을 깬 생존자를 위한 운동. 'Me Too'

미투 운동은 지난 2017년 한 영화 제작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할리우드의 여배우들이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me too'라는 해시태그로 다시 등장했다. 아역배우 출신 엘리자 밀라노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라면 'Me Too'라는 댓글을 달라'는 메시지를 SNS에 띄웠고 기네스 팔트로, 안젤리나 줄리와 같은 블로거가 참여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됐다.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미투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유력 인사들의 성희롱·주행·폭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The Silence Breakers)'로 명명하고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버크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해 1월 개최된 포럼에서 그는 현실을 고발하고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단순 '피해자(victim)'가 아닌 사회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생존자(survivor)'임을 강조했다. 또 미투 운동이 여성에게만 한정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운동이 아닙니다. 미투 운동은 폭력을 당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성을 충점으로 두고 말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임을 숫자가 증명하기 때문이죠."

- ▶ 문학과 리터러시의 관계처럼 리터러시는 손쉽게 미달, 지도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 ▶ (미디어)리터러시 역시 이런 이해 위에서 작동해선 안 된다. 특정한 모범이나 표준에 따라야 한다는 방식의 접근도 거부되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각자가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자신의 역량이나 힘으로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박정민. (2020.10). 나도 그래, 너와 함께 할게 미투 운동 창시자, 타라나 버크.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6. 미디어와 페미니즘 리터러시

‘Mum-Roach’? 한국에만 있는 혐오표현 ‘맘충’ 어떻게 번역됐을까

입력 2019.10.25 11:26

해외에서도 인기 ‘82년생 김지영’ 등장한 표현에 영국, 일본, 중국도 관심

BBC NEWS

Home Video World Asia UK Business Tech Science Stories Entertainment

Asia China India

Kim Ji-young, Born 1982: Feminist film reignites tensions in South Korea

By Hyung Eun Kim
BBC News Korean

© 23 October 2019

f t e m Share



LOTTE ENTERTAINMENT

영화 ‘82년생 김지영’과 한국의 혐오표현 맘충을 소개한 영국 BBC방송 온라인판 뉴스. BBC 캡처

“Mum-Roach.”

많이 본 기사

- 1 '나혼자산다' 30분이 술방… 음주 조장 도 남았다
- 2 성균관 "차례 음식 9개 충분, 위치는 가족끼리 결정"
- 3 태풍 오는데 바다서 보드 탄 절없는 어른들 적발
- 4 한남노? 한남도? 서울시도 옛 갈린 그 이름, 유래는
- 5 시진핑 '소수민족 동화정 책'에 엔센서 한민족이 지…

Your VIBES

문화

- 1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아니 '죽어갈' 것인가
- 2 대작 올라봤다고 민망할 이유 없죠…몰라도 재미있는 그림 감…
- 3 OTT 시대, 자막은 더 이상 장벽 안 돼…새 역사 이어가는 '오겔'
- 4 플 매카트니, 퀸, AC/DC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둔졌다
- 5 성균관 "차례 음식 9개 충분, 위치는 가족끼리 결정"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과학기술이 반드시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맘충’과 같은 혐오 표현의 사례를 보면, 어쩌면 더 끔찍한 것들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 이들에게 대항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끝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찾을 수 없다.

사진 자료는 전훈잎 기자. (2019.10.25). ‘Mum-Roach’? 한국에만 있는 혐오표현 ‘맘충’ 어떻게 번역됐을까. 한국일보.

6. 미디어와 페미니즘 리터러시

	경험론	입장론	포스트 모더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리터러시 시위 화	여성 문학, 여성 문화 콘텐츠, 여성의 글쓰기를 긍정하기	지배적인 글쓰기, 콘텐츠 양식 과 길항하는 여성만의 것을 추 구	리터러시의 타자화·식민화를 거부, 억압적인 규범 대신 힘 갖추기로서 리터러시 활용
한계	기존의 문학사, 문화콘텐츠에 여성을 추가로 기입할 뿐	'여성'이라는 폐쇄적이고 배타 적인 범주화	혐오와 차별을 포함한 모든 관 점을 용인해버릴 위험
저자(창 작자)에 대한 이 해	특정한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개인	비판적 사고와 젠더적인 차이 를 갖추기를 촉구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변 화하는 주체성을 가진 개인

6. 미디어와 페미니즘 리터러시

- ▶ 공교육에서든, 글쓰기를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새로운 접근성을 통해서든 기본권으로서 리터러시를 지키고 폄하당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
-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끝없이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갱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 '수준미달인 글', '의심스러운 내용(콘텐츠)'라는 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마음껏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경험을 ⁶⁹공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감사합니다.